

# 외할머니집 놀러온 여중생 둘 납치

## 동네 폭력배 윤락가 팔아넘겨

90.8.26

### 40대 손님이 구조

여름방학 동안 시골 외할머니 집에 놀러 왔던 여중생 2명이 동네 불량배에게 집단폭행당한 뒤 '인신매매'돼 8시간 동안 '티킷제' 다방 두곳과 사창가 등지로 끌려다니다가 사창가에 들어온 40대 손님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서울시경에 따르면 서울 여중 2학년인 김아무개(13) 홍아무개(14)양은 지난 2일 충남 아산의 김양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4일 만인 6일 동네불량배인 임아무개(18·무적)군 등 2명에게 폭행당했다.

김양 등은 당시 "온양 시내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임군 등의 말을 듣고 따라나섰다가 여인숙으로 끌려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여중생은 다시 임군 등의 선배격인 이아무개(19)군 등 2명이 임군 등을 돌로 때리며 위협한 끝에 이군 등에게 넘겨져 7일 오전 1시께 마을에서 1km 떨어진 공동묘지 옆 비닐하우스에서 집단폭행당했다는 것이다.

여중생들은 다시 이군 등에게 되돌려졌으며 이튿날인 8일 낮 12시께 이군 등에 의해 티킷제로 운영하며 윤락행위를 시키는 온양의 한 다방으로 넘겨졌다.

다방주인은 피해자들을 성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즉시 퍼머머리로 변장시키고 성적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옷을 사 입힌 뒤 또다른 티킷제 다방으로 넘겼다. 이 다방주인 역시 피해자들을 더 치장시킨 다음 티킷제 배달 종업원으로 부리려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이튿날 8시께 온양의 사창가로 넘겼다.

여중생들은 이날 손님으로 찾아온 40대 남자가 "이렇게 어린 애들을 이럴 수 있느냐"고 주인을 꾸짖고 데려나와 사창가에서 벗어났다. 이 남자는 여중생들을

온양역으로 보내 서울로 올라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두 여학생은 불량배에게 집단폭행당한 지 42시간만에, '인신매매'된 지 8시간만에 풀려난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두 여학생은 집으로 돌아온 뒤 불량배들의 보복과 재납치가 두려워 거의 숨어지내다시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여학생들의 피해진술에 따라 수사를 벌여 임군 등 3명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김금자(41·여)씨 등 다방 및 주점업자 3명에 대해 미성년자약취유인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양대 법학부 1945 학부 3

한양대 법학부 1945 학부 3

한양대 법학부 1945 학부 3

한양대 법학부 1945 학부 3

### 이번엔 버스운전사까지...

90.9.11

## 새벽 여승객 폭행

서울 강동경찰서는 10일 새벽에 혼자 시내버스를 탄 여자승객을 차안에서 폭행한 혐의로 범양운수 소속 버스운전사 김근철(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일 오전 5시40분께 자신이 운전하는 146-1번 시내버스에서 손아무개(44·카페종업원)씨가 술에 취해 혼자 줄고 있는 것을 보고 버스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교 밑 한강 고수부지로 몰고가 반항하는 손씨의 목을 조르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강제로폭행했다는 것이다.

손씨는 이날 자신이 일하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카페에서 일을 마친 뒤 버스를 타고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 추행기도 30대 칼필러 중상 여고생 정당방위 인정

한양대  
10.11

【청주=권혁상 기자】 6일 새벽 3시45분께 청주시 개신동 충북대 후문 앞길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연아무개(18·여고)양을 강제추행하려던 장현익(34·청주시 사직 2동)씨가 연양이 휘두른 칼에 찔린 채 달아나다 순찰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치3주의 부상을 입고 청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장씨에 대해 강간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연양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 무혐의처리 했다.

한양대 법학부 1945 학부 3

한양대 법학부 1945 학부 3

한양대 법학부 1945 학부 3

한양대 법학부 1945 학부 3